2015년
7월 8일 수요일

NO.396

상생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실현
/ 발행인 강영일 / 편집인 신철수 / 기사문의 042)607-3085 / http://www.kr.or.kr /

철도공단, 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공사 본격 추진!

- 2020년 개통 후 서울역까지 49분... 수도권 북동부지역 발전 기여 -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은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철도공단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작년 12월부터 본 공사 착수를 위한 기공승락 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대한 용지매수도 적극 추진하여 본 공사 착수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왔다.

진접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본선을, 서울시가 차량기지를 각각 맡아 2020년에 개통할 예정이며, 총 1조 3,3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서울지하철 4호선 종점인 당고개에서 남양주 별내~오남~진접까지 14.8킬로미터 구간에 3개소의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진접선이 완공되면 남양주 진접에서 서울역까지 4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하루 3만 5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남양주시를 지나는 국도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수도권 동북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 관계자는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왕숙천 및 국도 47호선 횡단 교량공사를 우선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에 공사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현황

□ 사업개요
- ○ 구 간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 ○ 사 업 비 : 1조 3,322억원 (본선 9,629억원, 차량기지 3,693억원)
- ○ 사 업 량 : 연장 14.786km, 정거장 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 사업기간 : 2010년 ~ 2020년
- ○ 시 행 자 : 한국철도시설공단(본선), 서울시(차량기지)

구분	사업시행자	사업비	기본계획 근거
본선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가 75%, 지자체 25%	철도건설법
차량기지	서울시	서울시 100%	도시철도법

□ 열차 운행계획
- ○ 설계속도 : 90km/h (표정속도 63km/h)
- ○ 차량계획 : 전동차 10량
- ○ 운행시간 : 003정거장(진접) → 당고개 → 서울역 49분 소요 (4호선)

[참고] 수도권고속철도 사업개요 및 율현터널 시공현황

□ 사업내용 : 수서~동탄~평택 61.1㎞ 고속철도 건설

□ 총사업비 : 3조 605억원

구 분	계	2014년 까지	'15년예산	16년 이후
계	30,605	17,623	8,654	4,328
국고(40%)	12,242	8,795	3,362	85
공단(60%)	18,363	8,828	5,292	4,243

□ 추진경위
- ○ '08. 7 ~ '09. 8 : 예비타당성조사용역
- ○ '09.12.31 : 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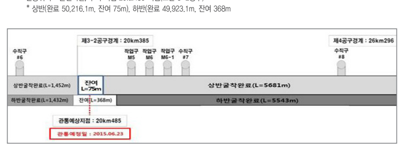
*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급행철도와 선로공용 추진

- ○ '10. 4.29 :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 '11. 5.27 : 사업실시계획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6호)
- ○ '11. 5~ '12. 7 : 노반공사 단계적 착공(12개 공구)
- ○ '13. 4. 4 : 동시시공 추진방안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의결
- ○ '13.12.19 : 수도권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고시
- ○ '15. 3.19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59호)

□ 율현터널 시공현황
- ○ 사업개요 : 수서~평택 61.1㎞ 신설(토공 4.2㎞, 터널 56.9㎞)

구 분	율현터널	통복터널
연 장	50.32㎞ (개착포함 52.25㎞)	3.10㎞ (개착포함 4.61㎞)
굴착완료	'15. 6.23(예정)	'14. 7.10

- ○ 관통위치 : 율현터널, 수서 기점 20㎞485 지점(노반 3-2공구)
  - * 상반(완료 50,216.1m, 잔여 75m), 하반(완료 49,923.1m, 잔여 368m)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50.3㎞ 율현터널' 뚫렸다!

- 24일 관통행사... 차질 없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개통준비 -

총 길이 50.3㎞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3번째로 긴 율현터널이 완전히 뚫렸다.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24일 오전 11시에 수도권고속철도 전체 구간의 83%를 차지하는 율현터널의 관통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은 3조 60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서~평택 61.1㎞ 구간에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X자형 고속철도 망을 완성하여 철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 강남권, 경기 동남부권 시민들이 고속철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착공에 들어갔다.

수도권고속철도는 동탄신도시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중요 교통망으로 기능하는 것은 물론 국토의 진정한 반나절 생활권 실현을 완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관통행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널 내부에서 개최되며 율현터널의 성공적 관통을 기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고난도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차질 없는 개통 공정 준수'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부분이 터널로 이뤄지는 수도권고속철도는 단층대의 분포와 싱크홀에 대한 사회적 우려 등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 방점을 두고 첨단공법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정밀 안전진단을 병행하여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사기간만 3년 5개월이 걸린 율현터널이 관통됨으로써,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도권고속철도 건설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철도공단 시설본부, 푸른사랑의 숲 가꾸기 8년째 봉사활동!

시설본부(본부장 이수형)은 24일 "KR 지역주민과 함께하기" 운동실천을 위해 임직원 40명이 참여하는 "신탄진 산림공원 숲 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공단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탄소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산림청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연2회 정기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올해로 8년째 이어오고 있다.

금번 행사에서는 공원화단 및 산책로 잡초제거와 오물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 뿐 아니라 쉼터, 긴의자 및 알림판 등 편익시설 점검 · 보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본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정비하여 쾌적한 자연공간을 만드는데 함께 땀을 흘리게 되어 보람되었다며, 앞으로도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공단, 「'15년 상반기 기술개발과제 성과보고회」 개최

- 현장 적용성 강화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노력 박차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15. 6. 30일(화) 대전 본사에서 내 · 외부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년 상반기 기술개발과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R&D 주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LTE-R기반 열차제어시스템(KTCS : Korea Train Control System) 실용화"과제 대한 사업추진 계획 보고와 함께 현장 적용성 강화 및 현장애로기술해결을 위한 자체추진과제 8건을 중심으로 총 10건의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였다.

서울대 장승은 교수를 비롯한 외부전문가 3명과 내부 전문가 2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 1건, 우수 2건을 선정하여 우수 연구원들을 격려하였다.

특히,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충남대, 교통대 등 철도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철도기술개발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KR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KR연구원은 철도유관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철도현장의 애로기술해결에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X 광주송정역사 이용객 편의시설 대폭 개선

- 화장실 대기시간 및 이동 동선 단축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최근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 광주송정역 이용객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역사 대합실 및 화장실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 증설과 편의시설을 추가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다.

화장실 증설은 지난 1개월간('15.05.20~6.20) 화장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광장남측 에스컬레이터 측면 여유 공간에 2개소(남 9, 여 13)를 추가 설치하여 오는 7.2일부터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지하철 화장실 이용도 용이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보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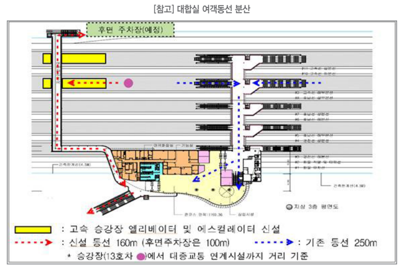
역사 대합실은 피크시 KTX 상,하행 열차의 배차간격이 짧고, 하차객이 대부분 대합실 이용에 따른 혼잡해소를 위해 자유연결통로에 승강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승강장에서 광장과 주차장으로 바로 진 · 출입 할 수 있도록 분산할 계획이다.

특히, .15.7.3일부터 개최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전까지 화장실을 증설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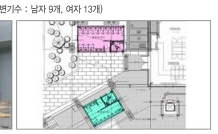
또한 코레일에서 운영중인 주차장은 390면을 운영중이나 주말주차난 완화를 위해 역사 후면에 주차장을 확장(150면)하고, 피크시 대합실 혼잡완화를 위해 KTX 상 · 하행 열차가 집중 되는 시간대의 열차시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코레일과 협의 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도역을 이용하는 여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철도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대합실 여객동선 분산



[참고] 화장실 증설(변기수 : 남자 9개, 여자 13개)



철도시설공단, '2015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판매 수익금 전액 이웃돕기에 사용 -

경영지원실(실장 이명환)은 6월19일(금) 공단 임직원과 대전소재 8곳의 사회적 기업들이 동참한 가운데, '2015 사랑나눔바자회'를 대전 공단 본사 1층에서 개최한다.
* 참여 : 사회적기업(4), 예비사회적기업 및 기타기업(각1), 사회복지법인(2)

'사랑나눔 바자회'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나눔문화실천 활동으로, 공단 임직원이 기증한 의류, 서적 등 생활잡화 1천여 점을 판매하면서,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각종 먹거리 및 생활용품 등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2013년부터 시행한 행사를 통해 판로확보가 어려운 사회적 기업의 우수한 생산물품을 전시 · 홍보 ·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증물품 판매수익금은 공단이 후원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하고 있다.
* 13년~14년 바자회 : 물품기부 총 2,127점 , 수익금 2백16만원,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나눔문화실천에 기여하고, 상생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채용, NCS · 전문경력 · 특성화高가 대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정부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고자 2015년도 신입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하여 총 46명을 7월 1일자로 신규 임용하였다.

※ 청년인턴 41명, 정보보안전문가 2명, 교통수요분석전문가 2명, KBS TV 스카우트 1명

특히, 이번 채용은 능력중심 사회구현을 위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와 역량면접을 적용하였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직을 채용하고, KBS TV프로그램 "스카우트"를 통해 특성화高에 재학중인 고졸자를 채용하는 등 채용통로도 다양화하였다.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취업준비생의 혼란을 막기위해, 2016년 상반기까지 NCS기반의 채용전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16년 하반기부터는 서류전형부터 전공과목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형을 NCS 채용으로 전환하여 직무역량을 갖춘 능력있는 철도인재를 발굴해 채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2015 대한민국 혁신대상에서 「경영혁신 대상」 수상!

- 포항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국민교통편익 증진 -

기획재무본부(본부장 박인서)은 6월23일(화) 한국표준협회에서 주최하고 한국품질경영학회에서 후원하는 2015 대한민국 혁신대상에서 '공공부문 경영혁신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단의 혁신대상 수상은 경부 · 호남고속철도 등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식혁신 기반의 성과창출과 CEO의 현장중심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공공히하여 함께 성장해 나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자율적 지식혁신을 통해 설계 경제성 검토(1)VE), 시공방법 개선 등으로 부채감축 목표치(9,802억원)를 23% 초과한 1조 2,086억원을 감축하여 공공기관정상화 중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현장조직을 강화하고, 상생토론회,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경영에 반영함은 물론 조속한 문제 해결로 호남고속철도 성공적 개통의 밑거름이 되었다.

1) VE(Value Engineering) : 가치공학, 원가절감과 제품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설계, 생산, 유통, 서비스 등 모든 경영활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기법

또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 ·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하여 원 · 하도급사 간 협력과 공정 개선 및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차단을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통과 공감의 활기찬 조직문화를 통한 자율적 지식혁신활동인 "일의 가치를 높이고 불필요한 일 줄이기" 혁신활동으로 국민으로부터 일 잘하는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철도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그 동안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온 지식혁신활동 성과가 오늘의 뜻 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철도공단, 최우수 공공기관 도약을 위한 발빠른 행보!

- 불공정관행개선 및 규제개혁, 정부3.0, 해외사업 진출확대 등 앞장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14년도 정부 경영평가 결과 'B' 등급을 계기로 "공단의 기능조정",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불공정 관행 및 규제개혁", "해외사업 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영일 이사장은, "금번 평가결과는 전년도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 속에서도 부채감축 목표대비 123%의 감축실적을 달성하는 등 임직원 모두가 묵묵히 합심하여 이뤄 낸 어느 때보다도 값진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공단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성과를 발판으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발표에 따른 향후 시설관리자로서의 공단의 역할 강화 등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공단이 앞장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철도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 과 건설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해소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국가 건설경제 활성화는 물론,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정부3.0 국정기조의 선제적 이행을 통한 공공부문 개혁을 선도하는 새바람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아울러,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선한 대안으로 국내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청사진도 제시하였다.

해외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공단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통해 정부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사업 진출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정보 공유 등 민간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기업과 상생의 수주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강영일 이사장은 지난 4월 VIP 남미 경제사절단 일행으로 콜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의 관련 부처 방문을 통해 MOU를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공단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마련한 바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우수 공공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6월25일(목) '미래발전자문단' 회의를 통해 새로운 경영혁신 아이디어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철도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 미래발전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사회단체 등 각 분야별 외부 저명인사 12명으로 구성되어 공단경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하는 기구이며, 분기별 1회 자문 시행

철도공단,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생각으로 변화를 이끌다.

- 3기 청년중역, 제도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업무효율 향상 등 알찬 성과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6월 30일(화) 오후 2시, 본사 21층 상황실에서 3기 KR청년중역*들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활동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중역들은 다양한 직급/직렬의 직원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며, 아래로부터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단 내 제도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업무효율 향상 등 알찬성과를 올렸다.

※ 만40세 미만 공단 내 젊은 직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7월 1일에 임명 후 1년간 경영진과의 소통할 수 있는 상향(上向)의 소통채널 담당, 공단 조직문화 활성화 도모 등 다양한 활동 수행

청년중역의 주요 활동을 통한 경영개선 사례를 보면 공단의 사업영역확대, 부채감축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단 내 관련법을 검토하여 공단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고,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직무별 업무매뉴얼을 작성, 전사적으로 공유하여 '일하는 잘 조직'으로 나아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또한, 전임직원과의 소통 · 교감을 위해 사내방송을 기획 · 운영하고,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KR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해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했다.

마지막으로 철도 부지를 직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산개발사업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젊은 직원들의 새로운 시선과 아이디어가 공단의 경영에 녹아드려 공단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새롭게 선발한 4기 청년중역 19명도 3기의 열정과 패기 못지 않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7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시설 지역사회와 함께쓴다

- 공단 시설장비사무소 교육장 등 적극적 개방 및 공유 -

시설장비사무소(소장 김동엽)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 및 공유 등 정부3.0의 적극적인 실천 일환으로, 사무소 내 교육장을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시설장비사무소(청주시 흥덕구 정중연제로 위치)는 국내 유일의 장대레일 용접 설비를 갖추고 있어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등 국가철도망 건설의 전진기지로 역할을 해왔으며 교육장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시설장비사무소가 개방하는 제1교육장은 내부 면적 260m² 로 최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3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 세미나실, 잔디구장, 테니스장을 부대시설로 갖추고 있어 워크숍 등 행사에 유용하다.

시설장비사무소 교육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의 '공단소개-회의실안내 및 예약'에서 볼 수 있다.

[참고] 시설장비사무소 교육장 사진 (오송기지)

교육장 전경

교육장 내부모습

부속 세미나실

잔디구장

구내식당 내부

테니스장

시설장비사무소, 1사1촌 자매마을 농촌봉사활동

- 인근 농촌마을과 결연을 통해 기업과 농촌의 상생의지 다져 -

시설장비사무소(소장 김동엽)는 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청주시 강내면 사곡2리(이장 이광문) 마을과 6월 30일(수)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설장비사무소는 기계와 장비를 다루는 업무가 많아 직원들의 기술적인 특성을 살려 농촌일손돕기, 농산물 구입봉사 등 일반적인 봉사활동 외에 농기계수리 등 특화된 봉사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설장비사무소 봉사단은 6월초에도 사곡2리 마을에서 20명의 봉사단원들이 배나무 과수원에서 봉사활동을 시행했으며, 자매결연식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동혈압측정기를 기증할 예정이다.

김동엽 소장은 "기업이나 공공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눈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배나무 과수원 봉사활동

철도공단, 호남선 '중촌동 대전건널목 입체화공사' 본격 시행

- 한전, KT 등 관련기관간 지장물 이설 협의 완료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대전시와 중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전시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대전건널목(호남선 대전조차장~서대전역간)을 입체화하는 지하차도 신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남선 대전건널목은 1970년 7월 15일 신설 이후 45년간 열차 운행 시 도로의 평면교차로 인한 장시간 차량대기, 건널목 안전사고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었다.

공단은 그 동안 한전, KT, 충남도시가스 등 각종 지장물 이설비용에 대하여 기관간 이견으로 인해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지난 5월 공단과 지장물 관련 기관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대전건널목 입체화 공사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본부 관계자는 "그간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장비,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하고 주말작업 등을 통해 공정을 만회하여 당초 계획된 내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약도

사업개요

- ○ 위 치 : 호남선 조차장~서대전간 2km710 대전건널목 (대전시 중구 중촌동 일원)
- ○ 공사기간 : 2014년~2016년
- ○ 사 업 비 : 348억원(공단 75%, 대전시중구청 25% 공동분담)
  - * 용지 및 가옥보상비 등은 대전중구청 전액 부담
- ○ 효 과 : 대전건널목 입체화로 열차안전운행 확보 및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로 지역발전에 기여

대전도심구간 고속전용선 건설에 따른 대전역 KTX 타는곳 변경

- 서울행 KTX 3번홈→2번홈 / 부산행 KTX 4번홈→5번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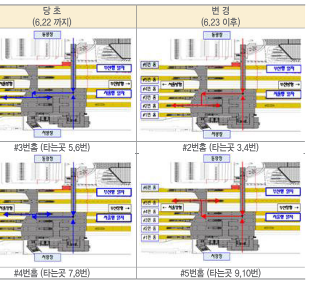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 건설에 따라 6월 23일 오전 06시부터 대전역에서 KTX 타는곳이 변경 운행된다고 밝혔다. 서울방면인 상행은 #3번홈(타는곳 5, 6번)에서 #2번홈(타는곳 3, 4번)으로, 부산방면인 하행은 #4번홈(타는곳 7, 8번)에서 #5번홈(타는곳 9, 10번)으로 변경된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혼용중인 대전 대덕구 오정동(한남고가)~충북 옥천군 삼청리 구간의 병목현상 해소 및 선로용량 증대를 위해 연장 18.2km의 고속전용선을 건설하는 사업('09.3월 착공)이다.

한편, 대전도심구간 고속철도 전용선 건설과 함께, 도심구간 내 경부고속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15개소와 측면도로 7.9km를 신설하는「대전도심 정비사업」도 막바지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된 지하차도부터 우선적으로 개통하여 도로교통체증을 조기 해소하고, 철도변에 대규모 완충녹지를 제공하여 그간 공사로 불편을 겪은 대전시민들께 보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역 KTX 타는곳 변경 (6.23부터)

구 분	당 초 (6.22 까지)	변 경 (6.23 이후)
상 행 (서울방면)	#3번홈 (타는곳 5,6번)	#2번홈 (타는곳 3,4번)
하 행 (부산방면)	#4번홈 (타는곳 7,8번)	#5번홈 (타는곳 9,10번)



영남본부, '철도유휴부지 민간임대 현장설명회' 개최

-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3만9,540m²) 대상, 6월30일 임대설명회 개최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철도 유휴부지 임대사업자 공모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6월30일(화) 오후 2시 부산시에 위치한 영남본부 5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철도 유휴부지는 부산 · 울산권 11개소 ,대구 · 경산권 11개소, 창원 · 진주권 8개소, 경주 · 포항권 8개소 등 총 38개소(39,540m²)이며, 도심지역의 역주변이나 선로연변 등 활용가치가 높아 임대사업자는 농산물저장고, 적치장 및 주차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영남본부는 금년 상반기에 총 6건(8,276m²)의 철도 유휴부지를 경쟁입찰 통해 임대해, 4천500여만원의 임대수입을 창출했다.

본부 관계자는 "국유지 무단사용 예방 및 대국민 임대 홍보강화로 공단 재무건전성 개선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영남본부 홈페이지(http://www.kr.or.kr/) 또는 재산부(☎ 051-664-5456, 5475, 546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남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예방을 위하여 참석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세정제 등의 물품을 설명회장에 비치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대설명회 철도 유휴부지 목록

번호	재산소재지	지번	면적 (m²)	사용료 (백만원)
1	부산 동구 좌천동	1164-8	827	13
2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122-1	483	16
3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974	3,127	2
4	부산 사상구 주례동	1231-50	656	7
5	부산 남구 감만동	254-9	640	6
6	부산시부산진구가야동	67-1 외 8필지	756	8
7	부산 동구 초량동	1187-25 외 1필지	840	13
8	부산진구개금동	208-16 외 8필지	400	6
9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신화리	24-3 외 7필지	917	49
10	울산시 북구 호계동	833-3	146	1
11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42-30	600	8
부산/울산권 소계	11개소	35필지	9,392	129
12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321 외 3필지	290	7
13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739-9 외 2필지	193	4
14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2-11 외 2필지	235	5
15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2-16 외 1필지	122	2
16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28-6	256	9
17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4-1	112	4
18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5-1 외 1필지	333	11
19	대구광역시 동구 동인동	190-2 외 2필지	189	9
20	경북 경산시 진량읍 안촌리	67-1 외 1필지	641	2
21	경북 경산시 진량읍 안촌리	67-5 외 1필지	674	2
22	경북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127-1	1,237	28
대구/경산권 소계	11개소	24필지	4,282	83
2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63-1	1,000	16
24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213-10	420	8
25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760-42	645	7
26	경남 진주시 진성면 문산읍 갈곡리	와구터널 1식	875	10
27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용담터널 1식	9,765	31
28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마사터널 1식	2,545	27
29	경남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91-1	478	6
30	경남 김해시 부곡동	91-5 외 1필지	500	5
창원/진주권 소계	8개소	6필지, 터널 3식	16,228	110
31	경북 경주시 광명동	1372-3 외 3필지	1,229	3
32	경북 경주시 구정동	459-9 외 2필지	1,620	3
33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산32-2	1,178	20
34	경북 포항북구 흥해읍 중성리	28-2	630	2
35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	31-1	690	5
36	경북 포항북구 우현동	5B-3L	224	6
37	경북 포항북구 청하면 덕성리	44 외 4필지	2,570	6
38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102-1 외 1필지	1,497	1
경주/포항권 소계	8개소	18필지	9,638	46
합 계	38개소	83필지, 터널 3식	39,540	368

강원본부, 철도시설개량 공사현장 우기대비 안전점검 시행!

- 장마철 집중호우 취약요인 제거로 재난예방활동 강화 -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는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기상이변 등으로부터 열차운행선 인접 시설개량사업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한달여간 관내 30개소의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우기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재난예방활동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본부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 낙석 및 철도횡단 공사, 하천횡단 가설도로, 운행선 인접 가시설 등에 대한 안전 상태를 집중 점검하여 배수로정비 5건, 임시작업도로 정비 5건, 절개지의 비탈면 정비 9건, 안전시설 정비 7건 등 총 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재정비토록 조치하였다.

강원본부 최정환 본부장은 '올해 여름은 대기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열차운행선 인접 공사현장에서 한건의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기 취약시설을 중점적으로 지도 ·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철도가 되도록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본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실태조사 시행.

수도권본부(본부장 김영하)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건설기계사용 현장에 대하여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는 2013년 6월 도입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증서 발급실적이 저조한 실정 등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본부 관내 토목, 건축, 궤도공사 54개 현장의 원 · 하도급사 180개사를 조사했으며, 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을 병행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원가반영 여부, 건설기계대여 서면계약 여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주요내용으로 했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기계대여금의 지급지연 등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본부 서문원기자〉

1사1촌으로 기업과 농촌의 상생의지 다진다.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청주시 강내면 사곡2리 1사1촌 결연식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장비사무소(소장 김동엽, 청주시 오송읍 소재)와 청주시 강내면 사곡2리(이장 이광문)는 6월30일 1사1촌 자매결연 맺었다.

이날 행사는 사곡2리 경로당 준공식과 함께 진행되어 흥겨움을 더한 가운데 허원욱 흥덕구청장과 지역 시도 의원, 주민 20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김동엽 시설장비사무소장은 기업이나 공공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눈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자매결연에 대한 의미를 두었다.

이광문 사곡2리 이장은 젊은 세대의 이농으로 농촌일손으로 농사일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1사1촌을 통한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은 농촌에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시설장비사무소는 1사1촌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의미로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동혈압측정기를 기증했으며, 마을에서는 간단한 기념품과 정성껏 차린 점심으로 서로의 정을 나누었다.

〈시설장비사무소 홍성희 기자〉

상반기 조기집행 초과 달성

- 충청본부 건설사업 집행계획 대비 102% 달성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7월 1일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15년도 상반기 조기집행에 대하여 본부목표(2,320억원)대비 52억원을 초과 달성(2,372억원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충청본부는 금년도 준공사업 및 신규 착공사업의 비중이 높아 상반기 조기집행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1월 월별 시행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준공사업은 조기준공, 신규착공 사업은 기 발주된 공사를 중심으로 선금을 최대한 집행하고 공사 및 지급자재 등에 대한 공정단축 등으로 기성금 상향 집행 방안으로 추진하였다.

상반기 조기집행 초과 달성을 위하여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4월부터 시행하여 달성목표를 64.5%(당초 63.1%)까지 끌어올려 전략목표로 설정 ·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정밀 분석한 성과이다.

특히 용지보상 업무는 4개 사업에 총 7개소의 현장 보상사무실을 운영, 담당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찾아가는 용지보상 서비스로 상반기에만 1,055억원을 집행하였다.

충청본부장은 그동안 메르스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초과 달성에 따른 경제활성화 기여로 안도감이 든다면서도 앞으로 연말까지 예산을 전액 소화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청본부 박준영기자〉

충청본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행

- 소규모 시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현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2015. 6.24 ~ 6.29(4일간) 시행하였다.

건설기술처와 시설관리처의 직원으로 점검반(3개조, 점검반장 : 건설기술처 안전사업부장)을 구성, 노반 및 전기분야의 소규모 공사 12개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통해 절토사면 보호시설 보완, 자재 보관 상태 미흡, 안전울타리 설치 보완 등 5건의 안전관리 미흡사항을 발굴하여 현지시정 조치하였다.

본부장은 "앞으로도 소규모 시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 및 불시의 안전점검 시행으로 시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본부 최정은 기자〉

청동지하차도(충남 논산시 소재)

조천2교(세종시 소재)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도심구간 고속 전용선로 개통에 따른 철도이용객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 '15년 7월 중 경부고속 대전 · 대구도심 고속 전용선 개통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도심구간 고속전용선 신설 사업의 '15년 7월 개통을 대비한 최종 대전 남연결 고속선로 운행선 변경을 2015년 6월 23일과 30일 각각 상선과 하선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음을 밝혔다.

지난 '09년 3월 착공하여 대전~옥천 마성터널간 18.2km(도심구간 6.7km, 기타구간 11.5km) 구간 KTX 전용선 건설, 지하차도 15개 신설, 철도변 4만 7,000m²의 완충녹지 조성, 측면도로 7.9km 개설 등 대전도심구간 고속전용선 및 철도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6년 4개월간의 건설공사가 마무리 중이다.

기존선 대전~옥천 구간을 KTX, 일반열차, 화물열차가 혼용중으로 입출구 병목현상으로 인한 열차 지연 발생 등 대전 역사를 이용하는 철도이용객의 불편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으나, 여객 위주의 고속철도와 화물위주의 일반철도로 운행 가능하게 되어 경부고속철도 효과를 극대화하게 되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충청본부 권순환 기자〉

경부고속철도 대전남연결선 현황도

경부고속철도 대전남연결 고속신선 연결 전 전경

경부고속철도 대전남연결선(상선) 고속신선 연결 후 전경

경부고속철도 대전남연결선(상선) 고속신선 연결 후 전경(열차통과)

경부고속철도 대전남연결선(하선) 고속신선 연결 후 전경

경부고속철도 대전남연결선(하선) 고속신선 연결 후 전경(열차통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도심구간 사업의 소통 · 상생 · 협력 워크숍 개최

소통 · 상생 · 협력 외치며! 성공적인 개통을 다짐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도심구간의 대전 남연결 고속선의 최종 운행선 변경을 '15. 6. 30일 시행하고, 협력사와 공단 담당자들간 소통 · 상생 ·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충청본부 직원 및 협력사 현장책임자 등이 참석한 이 워크숍에서는 공사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과 분야간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잔여 공사의 마무리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 및 의견교환으로 동반성장의 결의를 다졌다.

본부장은 공단 업무담당자와 협력사에 대한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며, 공단과 협력사간 동반자의식 지속 유지 및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없는 마무리 공사 시행을 당부하였다.

〈충청본부 권순환 기자〉

포항사무소 1사1촌 봉사활동 시행

- '15년 상반기 1사1촌 봉사활동 포항사무소 자체시행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 건설총괄처 포항사무소 직원11명은 6월 10일(수) 경남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 원당마을 사과농장 농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시행하였다.

이 날 봉사활동은 포항사무소 포항삼척PM부장을 비롯하여 부서원, 용지부서 직원 등 11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사과 씨솎기 및 거적덮기 작업을 시행하였다.

포항사무소 직원들은 당일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 포항에서 출발하여 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점심도시락, 음료, 작업용품등도 자체적으로 준비하였다고 한다.

갑작스런 무더위로 비록 작업은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원당마을을 찾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시행한 봉사활동은 마을주민들과 공단 직원 모두 만족스러운 win-win 봉사활동이었다.

봉사활동에 처음 참석한 신입사원들은 아직 못 자란 사과를 보며 신기해 하기도 하였고, 금번 봉사활동과 함께 가을 사과따기 봉사활동에도 꼭 참석하기를 희망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영남본부 포항사무소에는 포항삼척PM부 10명(부장포함), 용지부 5명 등 공단직원 총 15명이 근무중이다.

〈영남본부 박원일 기자〉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개통공정 정상 추진'

- 대구도심구간 종합시험운행 완료 및 영업시운전 시행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총사업비 1조 6,703억원(대구도심 정비사업 6,629억원 포함)을 투입하여 2008년 12월 착공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의 노반, 궤도 및 시스템 등 주요 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을 위한 종합시험운행(시설물 검증 및 영업시운전)을 2015년 4월 24일 시작하여 6월 30일까지 완료 후 2015년 7월 중 개통한다고 밝혔다.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지대한 국가적 관심속에 추진되어 1991년에 기본계획 확정을 시작으로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의 1단계 개통이 이루어져 한국고속열차(KTX)의 운행이 시작되었고, 2010년 11월 2단계구간이 개통되어 대전 · 대구도심구간을 제외한 서울~대전~동대구~부산 전구간이 고속철도가 운행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심구간(대전, 대구)의 고속철도 통과방식은 수많은 논의를 거쳐 지상화 통과방식으로 채택(2006년 8월)되었고, 2015년 7월 개통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전 · 대구도심구간이 개통되면 1992년 6월에 기공식을 거쳐 시작된 경부고속철도 전구간이 개통되어 서울~부산간 소요시간이 약 8분 단축되고, 대전 · 대구구간 병목현상이 해소되어 열차운영효율성은 물론 기존 경부선의 화물수송능력이 대폭 향상되게 되며 지난 4월에 개통된 호남고속철도와 함께 한반도 Y자형 고속철도 시대를 여는 명실상부한 선진철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영남본부 최병욱 기자〉

노선도

강릉차량기지 매수기간 단축을 위한 「용지 · PM 투게더 워크숍」개최

강원본부 용지부는「강릉차량기지 매수기간 단축방안 모색」을 위해 이례적으로 원주~강릉 PM부와 합동으로 「용지 · PM 투게더 워크숍」을 6.25~26 양일간 원주 인근 「백운산 수련원」에서 개최하였다.

워크샵에서 강릉차량기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하여 PM부서와 용지부서가 사업인정고시전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였으며, 향후 우선매수필지를 확정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상호 대응하여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기로 하였다.

*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 7월/ 실시계획승인 9월/ 보상협의회 개최 10월 / 감정평가 및 보상 11월

2017년 개통할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이 개통되면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의 철도망으로 연결하여 서울에서 강릉까지 운행 시간이 1시간 30분대로 단축되면서, 동해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본부 박동수 기자〉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
- ○사업목적: 원주~강릉 간 운행열차(KTX, EMU)와 영동선 연계노선 운행차량의 검수 및 유치를 위한 차량기지 건설
- ○총사업비: 1,962억원
- ○사업기간: 1996년 ~ 2018년(단, 2017년 12월 KTX 검수시설 준공)
- ○시설규모: 고속, 일반열차 검수 20편성 및 유치 13편성
- ○사업위치: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 543번지 일원

동해남부선 전포마을 교량화 설계변경

- 동해남부선 울산~포항간 전포마을 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 중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전포마을 토공구간이 교량으로 설계변경 된다. 동해남부선 사업 중 울산~포항구간인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전포마을 앞 토공구간 314 m에 대해 마을의 조망권과 주거환경 침해, 농업지장,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없애고, 교량으로 설계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다.

지난 2010년 06월부터 시작된 울산~포항 철도건설 전포마을 앞 교량화 요구 민원은 월산리구간 토공통과 계획으로 지역 단절이 발생되며, 전포마을의 조망권과 주거환경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교량화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설계변경을 위한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수차례에 걸쳐 시도 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영남본부는 지역주민의 염원인 전포마을 교량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2010.06부터 2015.03까지 5년에 걸친 노력 끝에 마침내 설계변경 심의를 마치고 314 m 구간에 대한 교량화 설계안을 확정 하였다. 이 사업을 위하여 영남본부는 314 m 구간에 13개의 교각을 추가로 설치하며, 총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량을 설치하게 된다.

영남본부는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을 고려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으며 최적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본부 최재용 기자〉

전포마을 위치도

조감도

강원본부, 자매마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전개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는 6.19(금)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자매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하였다.

강원본부 소속 KR봉사단원 25명은 이날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하여 오전에는 감자캐기 및 논메기 작업을 하였고, 오후에는 논메기 작업 및 잡초제거 작업을 하였다.

고산리 마을 이형남 이장은 "농번기 때 일손이 부족한 농촌마을을 찾아와 무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봉사해주시니 큰 도움을 받았다"며 거듭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셨다.

주요기사(2015. 6. 18~7. 1)

2015. 06. 19. [금]
- ◈ '철도시설공단이 광주송정역사 규모 축소' 관련 반론보도(광주일보2)
- ◈ 부산도심 폐철로 '뉴욕 하이라인파크' 처럼 만든다(한국경제24A)
- ◈ 울산신항 배후단지 철송장터 매각 확정(경상일보9)
- ◈ "KTX역-환승센터" 서대구驛舍 개발 '두 갈래 길'(매일신문4)
- ◈ '기차 다니는게 싫어서..' 기차선로 12차례 불법조작(경기일보6)
- ◈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조기 건설을"(강원도민일보16)
- ◈ "경춘선 종착역 연장해야 요금 인상"(강원일보16)
- ◈ KTX 포항~서울 직통선, 이르면 7월 주 4회 증편(매일신문9)
- ◈ 공공기관 정원 늘려 청년 채용키로(조선일보1)
- ◈ 엉터리 '공기업' 경영평가(국민일보17)
- ◈ 경의선 사라진 자리에 생겨난 공원 속 시장 '마포늘장'(경상일보11)
- ◈ "LH · 철도공단 체질개선 통했다"...경영평가 '개선'(머니투데이)
- ◈ 롯데百, 5천억 매출 영등포점 방 빼나(메트로)
- ◈ 중국은 지금 지하철 왕국으로 변신중(매일경제)

2015. 06. 22. [월]
- ◈ 철도시설공단 대전소재 사회적 기업 8곳과 사랑나눔바자회(충청투데이22,대전일보20)
- ◈ 내년부터 순천~부산 열차 운행 1시간 단축된다(전남일보5)
- ◈ 충북-강원 '국가 X축 철도망 구축' 의기투합(충청투데이4)
- ◈ "전라선 고속철도 · 이순신대교 국가관리를"(무등일보14)
- ◈ 원주~강릉 철도 공정대로 착착(강원일보22)
- ◈ "GTX · 3호선 파주 출발 역량 결집을"(인천일보9)
- ◈ 위례~신사선, 신림선 등 서울 경전철 계획 30일 고시(한국일보27)
- ◈ 화물열차 철로 탈선(중도일보7)
- ◈ 빗물에 미끄덩 '하늘열차'…장마철 어쩌나(영남일보9)
- ◈ 20조 규모 러 고속철사업, 中이 먼저 따냈다(매일경제10)
- ◈ 中 "원전 · 고속철, 우리가 곧 국제표준" … 시장 흔드는 '차이나 스탠더드(한국경제11)
- ◈ 임금피크제 해도 소득 · 국민연금 증가액 쏠쏠(서울경제31)
- ◈ [특파원 칼럼]北中러 접경지 잠재력에 주목해야(동아일보30)
- ◈ 철도시설공단 대전소재 사회적 기업 8곳과 사랑나눔바자회(충청투데이)
- ◈ 기재부, 국내기업의 베트남 교통 · 전력사업 진출 실행계획 합의(아시아투데이)
- ◈ 3호선 운행지연 사태 대구시의회 강력비판(대구일보)
- ◈ 용인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2개 기관 선정(경기일보)

2015. 06. 23. [화]
- ◈ 경부/호남고속철도 개통 통해 해외고속철도 진출(한국경제3)
- ◈ 대전 중촌동 건널목 입체화 이르면 내년 말 개통 '순항'(한국일보27)
- ◈ 중촌동 대전건널목 '역사속으로'(대전일보7)
- ◈ 전라선 고속철 등 4개 현안 정부에 공동 건의(광주일보11)
- ◈ "여주~원주 철도 조기착공 필요 예비타당성 조사 마무리 단계"(강원일보6)
- ◈ 생산 · 임금 · 고용 3박자 유발효과(강원일보19)
- ◈ 인천공항철도 다시 민자로 넘겼다(한겨레16)
- ◈ 코레일, 공항철도 지분 팔아 7조원 부담 줄인다(한국일보14)
- ◈ "서방 제재쯤이야..." 흔들림 없는 푸틴(서울경제11)
- ◈ 현대로템 이집트서 '청신호'(내일신문15)
- ◈ 원유 · 천연자원 많지만 인프라 열악… 韓 건설기업 진출 호기(파이낸셜뉴스40)
- ◈ 철도공단, 대전 중촌동 호남선 대전건널목 입체화 추진(news1 외 8개)
- ◈ 2020년엔 서울역~남양주 49분만에 간다(매일경제 외 20개)

2015. 06. 24. [수]
- ◈ 국내 최장 '50.3㎞ 율현터널' 뚫렸다(경향신문14A,경기일보1)
- ◈ 철도시설공단, '대한민국 혁신대상' 서 공공부문 경영혁신대상(대전일보20,충청투데이22)
- ◈ 대전역 KTX 승차위치 변경(중도일보2,충청투데이2,대전일보9)
- ◈ 6개 시군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 앞당긴다"(충청투데이16)
- ◈ 춘천~서울 도심 20분 단축(강원도민일보9,1,강원일보16)
- ◈ 영동대로 지하공간 '원샷 개발' 급물살(매일경제27)
- ◈ 도로 · 철도 등 SOC사업 '사회적 부채'로(경향신문20)
- ◈ 공무원 공직가치 교육 강화된다(서울신문14)
- ◈ 철도공단, 2015 대한민국 혁신대상 '경영혁신 대상' 수상(서울경제,아시아경제 외 8개)
- ◈ 수도권고속철도 율현터널 50.3㎞ 굴착 완료.. "국내 최장 터널 뚫렸다"(동아일보 외 25개)
- ◈ 공공기관 시설 지역사회와 함께쓴다(대전투데이)
- ◈ 국내외 잇단 낭보…건설사 '수주 가뭄' 해갈(이투데이)

2015. 06. 25. [목]
- ◈ 50.3㎞ 국내 최장 율현터널 개통(중앙일보14, 동아일보14)
- ◈ 철도시설공단 "건설현장에 사고 예방책 있었네"(동아일보B04)
- ◈ 철도시설공단 시설본부 신탄진서 산림공원 숲 가꾸기 행사(충청투데이22,대전일보20)
- ◈ 왜관역 시설개량 사업비 37억 확보 에스컬레이터 · 환승캐노피 등 설치(영남일보11)
- ◈ 철도 초고속화' 세계적 추세 맞춰 반나절 생활권 시대 열다(영남일보5)
- ◈ GTX 파주 연장, 기재부 난색에 '표류'(한국경제28)
- ◈ 14종 '테마 관광열차' 화재 등 안전에 취약(문화일보16)
- ◈ "몽골은 유라시아 물류의 커다란 축 한국과 협력땐 철도연결구상 탄력"(동아일보B04)
- ◈ 국내 최장 50.3㎞ 율현터널 관통(KBS, MBC, YTN, 채널A, TV조선 등)
- ◈ 신한대 '망월사역 스크린도어 설치' 철도공단에 촉구(국제뉴스)
- ◈ 전라선 고속철 등 4개 현안 정부에 공동 건의(광주일보)
- ◈ 인천지하철, 공항철도 검암역까지 연장 추진(인천일보)
- ◈ 고속철 안 멈추고 승하차, 획기적 구상 나왔다(아시아경제)

2015. 06. 26. [금]
- ◈ 서해선 복선전철 국비 확보 난항 (대전일보2)
- ◈ 전선업체 13곳 5년간 공공입찰 담합 (세계일보11)
- ◈ 새 역사 다시 쓰길 기다리는 울산의 폐선부지들 (경상일보11)
- ◈ 전남도, '호남고속철 모니터단' 발족 (광주일보5)
- ◈ 최고시속 430㎞ 국산 '해무' 세계 고속철시장에 도전장 (매일경제D04)
-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2년간 靑年고용 6700명 늘려 (조선일보6)
- ◈ 민 · 관 · 연기금 10조 출자 … 투자 마중물로 (서울경제5)
- ◈ 국토부-통일부 '통일도로 공사' 놓고 갈등(헤럴드경제24)
- ◈ 철도공단, 2015 대한민국 혁신대상서 '경영혁신 대상' 수상 (아시아투데이, 국토매일)
- ◈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에 올해 남북협력기금 33억원 지원 (연합뉴스)

2015. 06. 29. [월]
- ◈ 철도공단, 최우수기관 도약 '발 벗어'(파이낸셜뉴스16, 중도일보4)
- ◈ 경의 · 동해선 활용 못하면서 정부, 경원선 복원 내달 착공(한겨레17)
- ◈ '백마고지 ~ 월정리'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착공(경향신문18)
- ◈ 익산시, 황등면에 쌈지공원 조성(전북일보8)
- ◈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 광역철도 지정 '순풍에 돛'(경인일보21)
- ◈ 30대 공기업, 정규직 덜 뽑고 계약직만 늘렸다(경향신문19)
- ◈ [글로벌 시대] 개도국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 늘려야(서울신문30)
- ◈ 국토부 "성남~여주 복선전철, 급행전철 도입 검토"(news1)
- ◈ 철도공단LH · 동서발전 '낙찰률 연동→예가기준' 전환 했지만 · · · (건설경제)
- ◈ 경원선, 남측 구간 추진...DMZ 안보관광 활성화(news1)
- ◈ 지역 갈라놓았던 폐 철길 · 이웃 이어주는 숲길 되다(머니투데이)
- ◈ [단독]靑, 고위공무원 인적쇄신 예고...'인사태풍' 부나(머니투데이)

2015. 06. 30. [화]
- ◈ "오송 중심 X자형 철도망 구축...유라시아 연결하자"(한겨레10B,충청투데이01A,강원일보6)
- ◈ 경원선 복원, 남측구간 우선 추진(경인일보5)
- ◈ 오늘 철도유휴부지 민간임대 현장설명회(경북일보1)
- ◈ 철도시설공단 시설장비사무소 1사1촌 결연(대전일보16)
- ◈ 서울지역 72%를 전철역까지 10분內로(조선일보13,중앙일보21,동아일보20)
- ◈ 행복주택 부지 70곳 추가 확정(아시아경제17)
- ◈ 국토부, 성남~여주 복선전철 '급행' 검토(경기일보10)
- ◈ 인천시 "GTX 노선 변경 정부에 건의"(동아일보20B,경기일보01A)
- ◈ 오늘 철도유휴부지 민간임대 현장설명회(경북일보)
- ◈ 철도공단 시설장비사무소, 1사1촌 결연(중부매일 외 4개)
- ◈ 국가 X축 철도망 구축 완성...국토 균형 발전(NEWSIS)
- ◈ 철도공단, 최우수 공공기관 도약을 위한 발빠른 행보(대전투데이)
- ◈ 천안 두정역 개선사업 국비추진 탄력(대전일보)

2015. 07. 01. [수]
- ◈ 세계 3번째 긴 율현터널 3년5개월 '무사고 기록' (중부일보14)
- ◈ "호남 KTX 증편 · 송정역 주차장 증설"(무등일보6)
- ◈ 광주송정역사 편의시설 확충 철도공단, 화장실 등 신설(광남일보11)
- ◈ 'KTX 수원역 출발' 경제성 있다(경기일보01)
- ◈ "춘천~속초 고속철 하반기 착공 최선"(강원도민일보14)
- ◈ 도봉산~옥정 전철연장 속도낸다(헤럴드경제12A)
- ◈ "김포도시철도 차량 직접 평가 해주세요"(경기10)
- ◈ AIIB사업 명함 내려니, '담합' 딱지가(아시아경제04)
- ◈ 임금피크제 · NCS 우선 도입... 정책 실험대상 된 공기관들(파이낸셜뉴스25)
- ◈ 성희롱 개념 · 육아휴직 등 확대… 여가부 '양성평등' 으로 정책프레임 전환(파이낸셜뉴스06)
- ◈ 신칸센 열차서 70대 승객 분신…2명 숨져(중앙일보18)
- ◈ 지역상권 살리려… 부산시 구내식당 첫 휴무제(세계일보14)
- ◈ 동구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운영(중도일보10)
- ◈ 전북은행,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전북일보6)
- ◈ [오피니언]不通의 시대, 경원선 복원에 거는 기대 '(매일경제35)
- ◈ 철도공단 시설장비사무소, 농촌 1사1촌 봉사(국토매일신문)
- ◈ [춘천]체육시설 조성 철도 하부공간 이달 초 개방(강원일보)
- ◈ KTX 서대구 역사 마침내 현실화 되나(대구신문)
- ◈ 국토교통부, 관광열차 운행 정지 결정 '갑질' 논란(국민일보)

경조사

수도권본부 안전사업부 서문원 차장 부친상
□ 발 인 : 2015년 6월 23일

기술본부 수송계획처 임평익 차장 모친상
□ 발 인 : 2015년 6월 30일

호남본부 건설계획처 백승호 과장 빙부상
□ 발 인 : 2015년 7월 2일

수도권본부 김포철도사업단 김한준 차장 부친상
□ 발 인 : 2015년 7월 4일